



주님처치가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22일 오후 4시에 Sonora High School에서 거행했다. ©기독일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처치, 창립 1주년 감사예배
장로 은퇴찬하 및 신천 제직
임직식 개최

주님처치(최현규 목사)가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22일 오후 4시에 Sonora High School에서 거행했다. 이날 예배는 장로 은퇴찬하 및 신천 제직 임직식도 겸해 진행됐다.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고牧사는 이날 미국의 대형 기독교 기업인 ‘하비로비(Hobby Lobby)’의 사례를 통해 신앙의 가치를 지켜낸 믿음의 싸움을 전했다. 하비로비는 미국 전역에 천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전문 체인점으로,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기업이다. 그는 “오바마케어 시절, 기업이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강제되는 조항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승소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만약 패소했다면 1백만 달러의 손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이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간 결과”라고 강조

했다.

이어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현실만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주저앉고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시간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牧사는 “광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도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며 “우리 역시 믿음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인내해야 한다. 3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주님처치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신앙의 길은 얼마나 가느냐보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침 뱄음과 채찍질, 가시 면류관과 온갖 수모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자”고 말했다.

장로로 임직한 정성범 장로는 새로

운 직분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정장로는 “이번 임직을 통해 새로운 직분이 제게 주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 제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제는 자신을 내려놓고, 정성껏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따르겠다”며 “사랑과 자비, 양선과 온유, 절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장로는 “주님처치가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주님처치의 성도들은 UMC의 소속된 남가주주님의교회에 파송된 최현규 담임 목사 파송 통보에 반대해 작년 6월 주님처치를 설립하고 라하브라 소노라 고등학교 강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UMC의 동성애 수용 등 진보적 성향에 반대해 새 교회를 설립한 것이다. 토마스 맥 기자 주님처치 주일 예배 장소 소노라 고등학교(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텍사스주,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법 9월 1일부터 시행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6월 21일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상원 법안 10’(SB 10)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는 미국의 꿈이 살아 있는 곳이다. 오늘 나는 텍사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가 이 주에서 건설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안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상원법안 11(SB 11)과 상원법안 965(SB 965)에도 서명해, 학교들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학교 시간 내에 기도하거나 종교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자율적인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보수적 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케네디 대 브레머튼 학군 사건’(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판례를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판례는 축구 코치가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에서 기도할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텍사스 밸류스’(Texas Values)의 조나단 사이엔츠(Jonathan Saenz) 회장은 “십계

명이 텍사스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게시된 것은 큰 복이다. 텍사스 주 의사당과 미국 대법원에 있는 십계명 기념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벗 주지사가 법을 ‘이행’함으로써 모든 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이 게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퍼스트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매트 크라우즈(Matt Krause)는 “십계명과 국가의 모토를 전시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종교적 유산과 국가의 역사 및 전통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시민 자유 단체들은 이 법안이 텍사스의 약 600만 명의 학생들, 특히 다양한 종교를 따르는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리즈 머렐(Liz Murrell) 텍사스 법무장관은 이 법안을 옹호하며, 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2005년 텍사스주 의사당의 십계명 기념비에 대한 소송을 대법원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다. 강혜진 기자

美 종교자유위원회, 첫 회의 소집

미국에서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종교를 억제하려는 세속주의 단체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위원회는 향후 2026년까지 최대 9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종교 자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혜진 기자 → 2면에서 계속

erty)’ 첫 회의가 6월 16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성경박물관(Museum of the Bible)에서 열렸다.

이 위원회는 향후 2026년까지 최대 9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종교 자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혜진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송금·환전

당일지급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 상여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CONGRATS, GRADUATES!

APU
BIOLA
BOSTON UNIVERSITY
DREXEL UNIVERSITY
FORDHAM UNIVERSITY
LMU

MICA
MOUNT ST MARY'S
NORTHEASTERN
NYU
PARSONS
PEPPERDINE

RUTGERS
SANTA CLARA UNIVERSITY
SCAD
ST LAWRENCE UNIVERSITY
SYRACUSE
TEMPLE

UC BERKELEY
UC DAVIS
UC MERCED
UC RIVERSIDE
UC SANTA CRUZ
UCLA

UCI
UCSD
UCSB
UCSC
U OF ARIZONA FLAGSTAFF
U OF I CHICAGO

U OF I URBANA
UNIVERSITY OF PITTSBURG
U OF M TWIN CITIES
U OF WASHINGTON
UNIVERSITY OF THE PACIFIC
VIRGINIA TECH

Now Enrolling for the
2025-2026 School Year!

(213) 487-5437

ncahuskies.org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제7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풍성한 은혜 속 성료

4개 교단, 12개 교회, 78명 참가
AI 전문가 강사로 참여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은 자체적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2박 3일간 제7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Trust in the Lord’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4개 교단 12개 교회에서 78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영적 성장과 공동체 훈련의 시간을 제공했다.

올해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음악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가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이 자체적으로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열기 힘든 교회를 위해 지난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에서 제7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Ken Chung(Head of Growth Engineering at HeyGen)이 세미나 강사

로 참여해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신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

했다. 주최 측은, “작은 교회의 경우, 청

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눌 롤 모델이 없는 경우가 있다. 연합수련회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세미나 강사를 통해 이런 기회를 제공했고, 전문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는 삶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비신자를 포함해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타민족 청소년들이 다수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수련회의 모든 비용은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가 후원했다. 또한 행사의 전 과정과 프로그램을 위해 나성순복음교회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섬겼다. 이윤준 기자

GIFT, 제1기 ICF 자격증 과정 성공적 마무리

9월 2일 제2기 과정 개강
7월 8일·8월 4일 온라인 OT

임상심리학자 리디아 전 박사(원장)와 조셉 전(전달훈) 박사 부부가 공동 설계한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가 지난 6월 21일(토), 제1기 국제코치연맹(ICF) 자격증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총 1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제1기 과정은 2025년 2월 25일에 시작되어 16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현지는 물론 한국과 선교지에서도 수강생들이 참여했다.

정규 수업은 6월 10일에 종료되었으며, 6월 21일에는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1기 수료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과 축하 파티가 열렸다.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는 상담, 코칭, 의학을 통합한 독자적인 접근 방식으로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코치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기 수료생들은 ICF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을 습득함은 물론, GIFT만의 통합적 코



제1기 국제코치연맹 자격증 교육과정 수료생.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

칭 모델을 통해 자기 성장을 경험했다. 학교는 수료 이후에도 이들이 전문 코치로서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멘토링, 후속 교육,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제2기 ICF 자격증 과정은 오는 9월 2일 개강한다. 이에 앞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 7/8(화), 8/4(호) 저녁 7시 30분에 Zoom을 통해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GIFT는 6월 28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30분까지, 갓즈 패밀리 교회(6551 Western Ave. Buena Park)에서 관계 회복과 소통을 주제로 ‘사랑도 과학이다’ 일일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깊이 있고 따뜻한 소통을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자리로, GIFT의 Whole-Person 코칭 핵심을 직접 경험하고, 향후 교육 과정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열린 강의로서 마련되었다. 김민선 기자

문의 및 등록: www.giftcoachinstitute.com, 714-298-1115

제3회 평강 블레싱 콘서트 클래식과 찬양의 어울림

평강교회(송금관 목사)는 7월 12일(토) 오후 5시, 사우스파사데나에 위치한 평강교회 본당(606 El Centro St)에서 제3회 ‘평강 블레싱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밤도, 주님께 시선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깊은 영적 감동을 선사하는 예배의 무대이자 복음의 통로로 기획되었다.

무대에는 정통 클래식과 찬양 사역이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테너 오위영, 소프라노 김미경, 이영희, 김현주, 메조소프라노 원순일, 베이스 김성현, 피아니스트 김주영 등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며, 전창환 지휘자가 이끄는 La Luce Chamber Orchestra와 이영희 단장이 이끄는 Joy 여성합창단, 그리고 평강교회 섯별중창단이 특별 출연하여 감동을 더한다.

공연 후에는 교회 야외 마당에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



다. 그릴 핫도그와 수제 살사, 나초, 커피, 다양한 음료가 제공되며, 여름 저녁의 더위를 식히고 이웃과의 따뜻한 나눔을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신미셀 기자
주소 : 평강교회 본당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문의: 213-393-9136

→ 1면 기사 〈美 종교자유위원회에 이어서

패트릭 부지사는 “이 위원회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보고하는 것”이라며 “종교 자유를 위해 진지하게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주태도시개발부 장관 벤 카슨(Ben Carson), 방송인 필 맥그로(Dr. Phil)를 비롯해 법학자, 종교계 인사, 법조인들이 참석해 종교 자유의 역사적·법

적 중요성과 현대 사회에서의 도전과제를 논의했다.

가톨릭대학교 마크 리엔치(Mark Rienzi) 교수는 “과거에는 종파 간 충돌이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무신론자와 세속주의자들이 정부를 이용해 종교적 견해를 억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노트르담대학교 제럴드 브래들리(Gerald Bradley) 교수는 제임스 매디슨의 1785년 저서 『종

교에 관한 메모리얼과 항의서』(Memorial and Remonstrance)를 “미국 종교 자유의 마그나카르타”라고 칭하며, “종교의 본질은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유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백악관 신앙자문실을 맡았던 폴라 화이트-케인(Paula White-Cain) 목사도 “신앙 때문에 해고된 직원들, 은행

계좌가 폐쇄된 종교단체들, 권리를 무시당한 부모 등,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낙태시술소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23명의 생명운동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해야 했다는 사실을 누가 예상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세속주의 단체 ‘미국정교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은 이 위원회에 대해 “진정한 종교 자유가 아니라 기독교 민족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이첼 레이저(Rachel Laser) 대표는 “회의 장소부터 위원 구성, 발언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국이 백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국가였다는 잘못된 신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제: 교회와 가정 연계를 통한 삼대 동일 신앙 세우기

삼대 동일 신앙 목회 세미나 (신6:2) 2025



강사 : 김경운 총장

(한)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충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노회 노회장

강의시간 안내

오전 10:00 ~ 12:00	삼대가 함께한 세대 통합 예배
오후 12:00 ~ 1:00	점심시간
오후 1:00 ~ 2:45	삼대의 기본 튼튼 신앙 세우기,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오후 2:45 ~ 3:00	Break time
오후 3:00 ~ 4:00	3년 커리 만들기

- 날짜: 2025년 7월 28일(월)
- 장소: LA소망선교교회(김영호 담임목사)
3511 W Olympic Blvd #3FL, Los Angeles, CA 90019
- 등록: QR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주최: 미주 기독교일보, 미주 3대 동일 신앙 연구소(3rd Generation Same Faith Research Center in USA)
문의: 김영호 목사(213-590-9885), 김갑선 목사(213- 407-4524), 기독교일보(213-434-1170)

다음 세대 위한 전심전력...VBS로 심는 복음



방학이 시작되면서 남가주 한인교회들은 “Magnified!, Discovering the Bigness of God in the Smallest of Things”, “Keepers of the Kingdom”, “True North”, “Live It Out”, “At Camp Promised Land” 등의 주제로 여름성경학교(VBS)를 진행하고 있다. ANC온누리교회는 “Magnified!”(시편 34:3)를 주제로 6/18부터 6/20(수-금) 까지 VBS를 개최했다. 첫째날 오후 6시 VBS에서 엘리자베스 김 목사는 마가복음 4:1, 35-41절 예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작은 것들도 돌보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했다. © ANC온누리교회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 앞뒤

6/26일~ 28일
캘스테이트 롱비치

밀알선교단은 매년 여름 서부지단(남가주, 북가주, 밴쿠버) & ANC 온누리교회 장애인 부서 GM 연합으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칼스테이트(CSU) 롱비치 캠퍼스에서 6월 26일(목)~28일(토)까지 2박 3일간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사랑의캠프 주제는 장애인들과 봉사자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다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Run for the Prize(믿음의 경주)’로 정했다.

사랑의캠프 첫째날은 개회예배 후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

과 성찬식이 거행된다. 둘째날은 참가자들을 성인팀과 아동팀으로 나누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수영, 장기자랑, 댄스파티 등이 이어지며, 또 캠프 주제에 맞게 마라톤, 사이클, 수영 등 ‘철인삼종경기(Triathlon)’를 약식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날은 팀별 공연과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가진 후 폐회예배를 끝으로 2025년도 사랑의캠프가 막을 내린다. 김민선 기자

남가주밀알선교단: milalsca.org/



weBridge 교회 탐방기

김정호 목사 담임 가스펠교회

주일 아침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수준 높은 찬양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예배를 시작한 줄 알았다. 네 사람으로 구성된 성가대의 찬양 연습이었다.

예배가 시작되자 또 다른 색깔의 찬양이 이어졌다. 담임 목사님과 찬양단이 함께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다.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김정호 담임목사는 전문 성악가다. 그런데 찬양단과 성도들의 찬양이 김정호 목사의 찬양에 비해 손색이 없었고, 찬양은 은혜롭고 더 뜨거웠다.

예배는 잘 준비되어 물 흐르는 듯 진행되었다. 찬양과 예물 드림, 친교 그리고 말씀이 조화로웠다. 잘 준비된 예배는 성도들 마음을 열게 했다. 대표 기도를 담당한 집사님은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충분히 묵상한 듯했고, 성도의 마음



가스펠 교회. ©기독교일보

을 잘 묵었고, 특히 목사님의 설교와 연결된 기도가 참 좋았다. 예배의 압권은 김정호 담임목사의 설교였다.

그의 설교는 성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QT 본문에서 발췌된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다. 깊이 있는 본문 연구와 묵상으로 준비된 성도의 삶을 터치했다.

예배당 곳곳에서 들려온 “아멘!”은 심령을 찢어 찢개는 말씀에 대한 살아 있는 영혼들의 반응이었다. 예배를 탐방하며 큰 은혜를 받았다. 젊은 목회자의 뜨거운 가슴과 섬세하게 말씀을 준비한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

친교의 시간은 가족 같은 파스함과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풍성한 사

랑이 넘쳤다.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의 표현은 교회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했다.

가스펠교회가 예배드리는데 예배당은 품격 있는 건물이다. 오래된 미국 교회 건물인데 미국인 성도들이 10시에 예배당을 비워줘 가스펠 교회가 마음껏 사용하게 한다.

가스펠 교회를 담임하는 김정호 목사는 총신대학교 종교음악과에서 성악을 전공한 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18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의 상임단원으로 활동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특전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미국에 건너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다. 김정호 목사의 설교는 복음방송에서 방송설교로 전해진다. 강훈 기자


생명의 기운 가득한 명품교회

→ 3면 기사 <가주 상원, 한국 전쟁..에 이어서

최 의원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장병들의 이름은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에 위치한 힐크레스트 공원의 한국전쟁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며 “이 엄숙한 기념일에 우리는 평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고, 역사를 기억해야 할 우리의 책무를 다짐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미국인과 한국인 모두의 희생 덕분에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한인으로서 유엔기발 아래 우리와 함께 해준 미국과 21개국의 연합군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국제적 동맹국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니 스트릭랜드 36지구 상원의원을 비롯해 총 7명의 상원의원들이 결의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SR49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가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75년 전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삶을 이어오신
한인 시니어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센터메디컬그룹의 돌봄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 **센터메디컬그룹**

문의연락 888-847-3098

나이지리아 풀라니 무장 세력, 이주민 대피소 공격… 최소 100명 사망

현지 성직자들 “경찰의 대응 능력 부족”

나이지리아 베누에주에서 풀라니 무장 세력에 의한 최악의 공격이 발생, 수많은 남녀노소가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 사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100명 이상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공격은 6월 13일(이하 현지 시각) 오후 10시경에 시작됐다가, 당초 나이지리아 보안군에 의해 일부 저지됐으나, 무장 세력은 결국 목표물을 변경해 마켓을 공격하기로 했다. 당시 나이지리아 경찰은 무장 세력의 공격을 저지할 충분한 장비와 자원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가톨릭 성직자들은 경찰의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공격은 내부 이주민(IDP)들이 대피해 있던 선교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장 세력은 이전 공격



나이지리아 베누에주 구마 지역 엘레와타 마을의 파괴된 건물. ©CSW 제공

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를 불태우며 민간인들을 공격했다. 선교지에 대피한 IDP의 수는 400명에서 700명 사이로 추

정되고 있다. 공격자들은 이슬람의 ‘알라후 아 크바르’(알라는 가장 위대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격을 감행했

다. 이 사건은 풀라니 무장 세력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그 규모가 특히 크고 잔혹한 수준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풀라니 무장 세력에 의한 공격은 나이지리아 북중부와 중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농민들이 주요 피해자로 꼽힌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성직자들이 납치됐고, 기독교 축제인 부활절과 성탄절 기간 동안 교회들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2011년 이후 이 지역에서 5,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15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피난민이 됐다. 세계기독교연대(CSW) 나이지리아 지부의 윤우사 음마두(Yunusa Nmadu) 대표는 “베누에는 한때 나이지리아의 식량 바구니라고 불렸던 지역이지만, 현재는 무장 세력들의 공격으로 인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말로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단호한 태도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진 기자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 “예수는 하나님” 신앙고백 눈길

'죽음은 끝 아닌, 또 다른 현실로의 전환' 강조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기록한 인물인 김영훈(YoungHoon Kim) 씨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며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

치가 276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김영훈 씨는 20일 X(구 트위터)에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어 “그리스도는 나의 논리(logic)”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자신이 연세대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을 언급하며 “신학을 모든 학문 중 최고의 학문”이라고 했다.

3월 18일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신학을 전공한 것”이라고 적었다.

김 씨는 또한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계속된다고 생각한다. 의식은 단순한 뇌 활동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학은 뇌가 멈추면 의식도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양자물리학은 정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 의식이 양자 정보라면, 그것은 몸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며 “컴퓨터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듯, 우리의 의식도 뇌에만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다. 양자 얽힘은 우리의 의식이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선 더 큰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 우리의 세계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고 믿는 과학자와 철학자들 중 한 사람”이라며 “현실이 더 큰 존재의 일부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로의 전환이다. 과학은 현재 의식과 현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으며, 우리의 죽음은 파괴가 아닌 변화이자 전환”이라고 했다.

김영훈 씨는 2024년 공식 세계

기록으로 ‘세계 최고 IQ’를 인정받았으며, 그 이후 세계 메모리 챔피언십(World Memory Championships)과 세계 메모리 스포츠 협회(World Memory Sports Council)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네스 세계기록에서도 이를 공식 인증받았다.

또한 ‘유나이티드 시그마 인텔리전스 협회’ 창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비영리단체로, 고(故) 리처드 도킨스와 닐 디그래스 타이슨 등이 그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10월부터 ‘NeuroStory’의 창립자이자 CEO로 활동 중이다.

이 기업은 한국 중소기업기업을 로부터 “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인공지능(AI), 기계 학습, 빅 데이터, 나노기술, 첨단 데이터 분석과 뇌과학 기술을 이용해 뇌 건강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강해진 기자



김영훈 씨 트위터 캡처.

백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에서 스스로를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라고 소개하며, IQ 수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적 관점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한 영상에서 그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 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Talbot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봇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장 인사말

탈봇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봇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div>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div>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9천여 명 참가 속 ‘2025 CCC 여름수련회’ 개막

27일까지 진행… 박성민 대표 “사명 발견하길”

2025 CCC 여름수련회가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23일 개막했다. 수련회는 앞으로 27일까지 4박 5일 동안 ‘Seize your Season’(전 12:1)라는 주제로, 해외 24개국 참가자 250명을 비롯해 전국 40개 지구 330개 캠퍼스, 9,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수련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저녁집회, LTC와 성서강해, 선교학교 등 지구 교육, 새친구반, 선교·비전·통일박람회가 있다.

CCC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비전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대학교수선교회 교수 160여 명이 참가하는 교수 연합 선교대회를 마련한다.

첫째날 간증자로 나선 김주영 순장(연세대 3년)은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모태신앙으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에 늘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주 술 자리에 나갔다. 그러나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점점 더 어두움과 상처 속에 빠지며 삶을 끝내고



2025 CCC 여름수련회가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23일 개막했다.

싶은 절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때 엄마 순장님의 권유로 고민 끝에 작년 여름수련회에 오게 됐다. 수련회 첫날 기도 시간,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죽음이 두려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저의 죄를 회개

하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경험했다”며 “수련회 이후 도

시전도와 단기선교를 결단하며 저와 같이 상처받은 영혼을 돌아보는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후 CCC 대표 박성민 목사가

단상에 올라 ‘당신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첫째날 메시지를 전했다. 박목사는 “과학과 이성

이성이 발전해도 사람은 형이상학적 존재와 연결되기 원한다. 그래서 과학이 방법을 설명해 줘도, 즉각적인 해답과 위안을 주는 MBTI, 점성술 등을 의지한다”며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연합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온 새친구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으로 나아오길 축복했다.

이어진 기도회를 인도한 성남지구 강수정(가천대 4년) 총순장은 “하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우리를 향해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앉아 주소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며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회 후에는 특별히 결성된 ‘SOONNEXTDOOR’ 팀의 환영 영상

상이 상영됐고, 곧이어 무대에 올라 직접 만든 위십과 개사한 곡에 맞춰 무대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축복해’, ‘사랑해’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나눠 붙이며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했다.

김진영 기자

신앙 선택한 대가… 소말리아 여성, 개종 이유로 이혼·추방·살해 위협 받아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세 자녀를 둔 31세 소말리아 여성이 최근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남편과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CDI는 이 여성이 지난 3월, 소말리아 남부 키스마요 인근 자마메(Jamaame) 마을의 가족 집에서 쫓겨난 후 곧바로 남편과도 이혼당했으며 그녀의 자녀들은 각각 5세, 7세, 9세로, 현재 이들과 함께 극심한 생활고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채 모닝스타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녀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며 "지난 세 달간 예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돌보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성탄절 밤, 예수 영화

를 본 뒤 시작된 신앙 여정

CDI는 그녀의 신앙이 지난 크리스마스이브, 한 기독교 사역자가 그녀와 아이들에게 '예수 영화(Jesus Film)'를 보여주면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1월 20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다.

그녀는 "남편이 100km 떨어진 주바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예수 영화를 시청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이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라마단 기간 이던 3월 1일, 그녀는 어머니에게 영화를 보여주었고, 며칠 뒤인 3월 4일에는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시청했다.

그녀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고통을 받다니...'라는 말

이 입에서 나왔다"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놀라며 왜 우느냐고 물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심각한 불쾌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여성의 아버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알라가 보낸 선지자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 영화는 사탄이 조종하는 거짓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녀가 반박하자 그는 "이 집에는 너의 자리가 더 이상 없다. 아이들과 함께 나가라"고 했다.

협박과 도피 속에서도 신앙 지켜

CDI는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3개월 안에 이슬람으로 돌아오고 남편에게 복귀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았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더 격분하며 그녀와 어머니를 함께 집에서 내쫓았다. 한 달 후, 어머니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돌아갔다.

해당 여성은 지난 10일 남편으로부터 전화로 이혼을 통보받았다. 그녀는 이슬람 관습에 따라 "나는 너를 이혼한다"는 문장을 세 번 반복하며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이후 두 명의 친척으로부터 "배교자는 죽어야 한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고 지난13일, 자녀들과 함께 케냐 국경 인근 지역으로 도피했다. 현재 그녀는 여러 마을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거처와 학비, 그리고 생계를 위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절실하다"며 "나의 삶을 바꾸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의 삶도 변화시켜주시길 기도한다.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위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소말리아,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중 하나

CDI는 소말리아가 헌법상 이슬

람을 국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종교의 전파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모든 법률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따라야 하며, 이는 비이슬람 신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슬람 율법의 주류 해석에 따르면 배교는 사형에 해당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알샤바브(Al Shabaab)는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단체는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으며, 2011년 케냐군이 아프리카 연합군과 함께 알샤바브를 공격한 이후, 케냐 북부에서 비무슬람을 대상으로 한 살해 사건이 잇따랐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소말리아는 전체 2위를 차지하며 기독교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최승연 기자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 +tax

1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 +tax

2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 +tax

3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英 생명운동가들 “출산 직전까지 낙태 허용하는 개정안 반대”



▲영국 친생명단체 회원들이 총리 관저에 낙태 기한 단축 청원서를 전달했다. ©영국 생명권

영국의 친생명운동가들이 “사실상 출산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 개정안들은 낙태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의 안전장치들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스텔라 크리시(Stella Creasy)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NC20’은 성별 선택적 낙태를 포함해 어떤 이유로든 출생 직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낙태를 실행하기 위해 의사 2명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사망한 아기의 시신을 은폐하는 것에 대한 법적 처벌과 같은 현행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또 다른 개정안인 ‘NC1’은 토니아 안토니아치(Tonia Antoniazzi)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여성들이 출산 직전과 출산 중에 스스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들이 집에서 스스로 낙태를 시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친생명단체인 영국생명권(Right to Life UK)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험한 ‘임신 후기 낙태’를 집에서 시도하는 여성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캐롤라인 존슨(Caroline Johnson) 박사가 제

안한 수정안 ‘NC106’은 여성들이 집에서 낙태약을 우편으로 받기 전, 직접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보수당 전 대표인 이언 던컨 스미스 경(Sir Iain Duncan Smith), 리폼드 UK 부대표인 리처드 타이스(Richard Tice), 자유민주당 전 대표인 팀 패런(Tim Farron)을 포함한 40명 이상의 초당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영국생명권은 최근 낙태 약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서비스의 남용 사례를 지적하며,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 남성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비밀리에 임신중절약을 투여해 아이를 잃게 한 혐의로 감옥에 갔고, 또 다른 여성은 임신 시기를 속여 임신 32~34주차에 낙태약을 복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영국생명권 캐서린 로빈슨(Catherine Robinson) 대변인은 “낙태 로비단체들이 무책임한 사후피임약 제도의 파괴적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려고 한다. 이 제도는 낙태약을 처방하기 전에 여성의 임신 주수를 확실히 확인하고 건강상의 위험이나 강압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대면 상담 요건을 없애, 여성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인도네시아 8세 소년, 신앙 이유로 집단폭행 당한 후 사망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리아우주 불루 람파이(Buluh Rampai) 마을에서 8세 기독교 소년이 또래보다 나이가 많은 무슬림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복강내 감염으로 인한 맹장 파열로 사망했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충격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9일 발생했다. CD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피해자 크리스토펠 부타르부타르(Khristopel Butarbutar)는 같은 학교 5학년생 4~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그의 자전거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내고, 복부와 하복부,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밤, 크리스토펠은 고열과 허리 통증, 복부 팽창 증상을 보였고, 그의 부모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크리스토펠의 아버지 김슨 베니 부타르부타르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전부터 아들이 민족성과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반 학생들은 11세에서 13세 사이의 가해자들이 종교적, 민족적 모욕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이웃들은 가해자들이 크리스토펠의 생식기를 가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했다.

학교 측은 지난 5월 23일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피해 학생의 가족을 소환해 중재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가해 학생들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

나 크리스토펠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다음날 그의 부모는 그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시설이 부족해, 리아우 주 수도 뽕갓(Rengat)에 위치한 페마탕 레바 지역병원으로 이송됐다. 크리스토펠은 5월 26일 새벽 2시 10분께 끝내 숨졌다.

5월 27일 발표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크리스토펠의 복부와 다리에는 둔기에 의한 멍이 다수 있었고, 복강 내부에서는 파열된 맹장 조직과 함께 출혈이 발견되었다. 인드라기리 홀루 경찰청장 파히리안 살레 시레가는 “복부 지방조직에 혈액이 고여 있었으며, 이는 둔기로 인한 외상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펠의 장례식에는 가해자들의 부모와 학교 관계자들, 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지역 사회는 이 비극적인 죽음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올레마 위원회(MUI) 안와르 아바스 부위원장은 “초등학생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수준의 잔혹함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사바 시나가도 “소수 종교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 수업 시간에 더욱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ICPC) 디안 사스미타 위원은 “학교 내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기 감지 체계와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에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 606-2345, (424) 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엔 Only 오전 8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일 모라리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in 코너)
T. (213) 386-2233

주일에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에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에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에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생애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에배 1부 오전 8:15
주일에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에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에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주일에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에배 1부 오전 9: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에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에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문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월-토)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에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매체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찬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장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여부 오후 1:00
KM대학생찬양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장년(교육부)세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전 7: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미 전역에서 오순절 대부흥...
2만 8천 명 이상 세례 받아

미국 전역에서 6월 오순절 주일을 맞아 2만 8천 명이 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대규모 부흥 행사가 열렸다. ©Courtesy Baptize America

미국 전역에서 6월 오순절 주일을 맞아 2만 8천 명이 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대규모 부흥 행사가 열렸다. ‘Baptize America’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전국적 운동은 600개 이상의 교회가 연합하여 1,000개가 넘는 개별 모임을 개최하며 이뤄졌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이 운동은 캘리포니아 오션스처치(Oceans Church)의 담임 목사인 마크 프란시(Mark Francey)목사의 주도로 진행됐다. 그는 “몇 년 전 기도 중에 열린 환상을 통해 이 부흥 운동의 비전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란시 목사는 “캘리포니아의 해안가인 파이렛츠 코브(Pirate’s Cove)를 시작점으로 삼으며 이 운동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을 거쳐 결국 땅끝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의 그 조용하고도 분명한 음성이 제 마음에 아주 뚜렷한 생각들을 심어주셨다. 그중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은 ‘오순절 주일에 이 일을 하라’는 말씀이었다. 바로 교회가 태어난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란시 목사는 “오순절이 단지 교회안의 절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은 이들도 교회를 찾아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 공식적인 침례자 수는 집계 중이지만, 전체 참여자는 대략 2만 8천 명에서 2만 9천 명, 어쩌면 3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CP는 이번 운동이 미국 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aptize Canada’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도 약 1,100명이 침례를 받았고, 파라과이와 스웨덴 등에서도 소규모 침례 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프란시 목사는 “이러한 대규모 부흥 행사가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나 자신보다 크고, 더 훌륭하며, 더 지혜로운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공로를 스스로에게 돌릴 수 없다. 이번 운동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위대한 리더들을 연결시키시는 손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 가운데 최소 다섯 곳 이상이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동참은 ‘임계 질량’을 형성하며 이번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텔라웨어주 뉴캐슬에 위치한 Victory Christian Fellowship 교회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교회 중 하나였다. 담임목사 로리 이다호사(Laurie Idahosa) 목사는 C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우리 교회는 C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에 늘 참여하고 있다’며 오순절 주일에 12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전했다.

플로리다 랜드오레이크스에 위치한 GrowLife Church의 캔디 베일리(Kandi Bailey)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서도 22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더 큰 비전,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이들의 연합에 동참하고 싶었다”며 “수많은 이들이 믿음 위에 일어서는 장면을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말 감동적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연 기자

닉 부이치치 “교회가 진정한 치유의 장 돼야”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 온 전도자 닉 부이치치가 이제 자신의 관심을 교회 자체로 돌리고 있다.

닉 부이치치는 최근 텍사스주 그레이프하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를 믿는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독교 상담의 중요성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구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매주 설교를 듣지만,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있다”며 “구원받고 무덤까지 가는 인생의 여정 중에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도 나눴다. 오랜 세월 동안 상담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치유의 여정을 걸어온 그는 자신도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으면서, 그러나 현재 많은 교회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불편한 일로 여겨지고, 그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부이치치는 “책임감을 갖고, 전진하고, 다시 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인 ‘일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설교와 가르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장소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는 사람들이 슬픔, 트라우마, 죄책감,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안

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기독교 상담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복음에 뿌리를 둔 사랑의 필수적인 표현이다. 모든 교인들이 일대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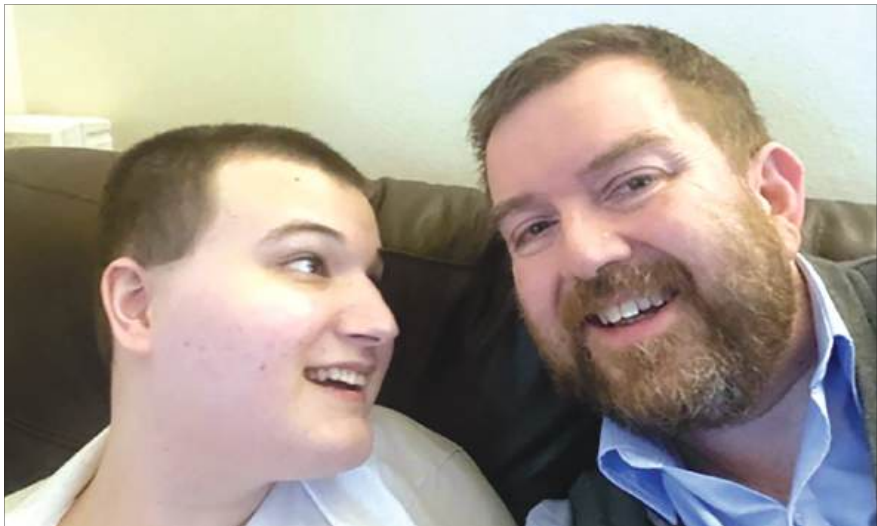
바나그룹(Barna Group)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사회 전체가 과거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교회는 여전히 그에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 중 15%만이 “정신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비기독교인은 그 비율이 33%에 달했다. 특히 음란물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부이치치는 “교회가 단순히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제자 양성에 실패한 결과로 봐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인내심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참전용사들, 슬픔에 잠긴 가족들, 중독과 수치심과 싸우는 사람들을 섬기며,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복음의 본질을 말하다



마크 아놀드(오른쪽).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마크 아놀드의 기고글인 ‘혈루증 여인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What the woman healed of bleeding teaches us about Jesus)을 최근 게재했다.

마크 아놀드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어반 세인트(Urban Saints)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The Additional Needs Blogfather’(추가적 필요 블로그파터)의 작가, 연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3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 3분의 2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내용이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말하고 있기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치유의 기적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신 데는 종종 이유가 있었다. 예를 들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 지붕을 뚫고 내려졌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를 사하신 후, 그를 일으키심으로써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셨다. 또는 회당 안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율법 해석을 정면으로 도전하시기도 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치유하신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경우도 있다. 한 문둥병자에게 그러하셨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로의 딸처럼 직접 길을 떠나 치유하신 경우도 있고, 백부장의 종처럼 멀리 떨어진 이에게 말씀만으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경우도 있었다. 어떤 때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셨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예수님의 치유는 결코 무의미하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눈앞의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며,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셨다. 맹인 바디매오를 대하실 때처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치유 사건 중에서도 단연 독특한 한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이 능동

적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믿음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고, 그로 인해 치유가 일어난 사건이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 24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르고 있었다. 그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겪었고, 가진 것을 다 써버렸지만 오히려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예수에 대해 들은 그녀는 무리 가운데 숨어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서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느끼셨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무리가 밀치는 상황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의 손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셨다.

그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한 일을 모두 고백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 속에 살아왔다. 율법상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어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온 그녀는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직접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분의 능력을 믿고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예수님은 당시 회당장 아이로의 집으로 가는 급한 상황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에게 온전한 시간을 허락하셨다. 단순히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군중 앞에서 자신이 깨끗해졌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딸아”라고 부르심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게 하신 것이다.

최승연 기자

LA다저스 커쇼, 구단 ‘성소수자의 밤’ 행사서 성구 적힌 모자 착용

LA 다저스의 스타 투수 클레이튼 커쇼(Clayton Kershaw)가 구단이 주최한 ‘성소수자의 밤’(Pride Night) 행사에 성경 구절이 적힌 모자를 착용하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다저스 선수들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무지개색 팀 로고가 새겨진 성소수자 모자를 착용했다. 이는 다저스 구단이 12년 연속 진행하는 ‘성소수자의 밤’ 행사의 일환이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커쇼는 모자 앞면에 굵은 글씨로 ‘창세기 9:12~16’이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착용한 채 경기장에 나타났다. 창세기 9장 12-1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16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

시는 내용이다. 커쇼의 모자에 새겨진 성경 구절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많은 이들은 “클레이튼 커쇼가 무지개가 실제 상징하는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켜 줬다”며 기독교적 신념을 담대하게 드러낸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커쇼는 과거에도 팀이 성소수자 이념을 수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저스가 2023년 5월 ‘성소수자의 달’(Pride Month) 축하 기획의 일환으로 한 드래그 공연(남성 또는 여성을 가장하는 것) 단체를 명예상 수상자로 초청하자, 커쇼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커쇼는 “해당 단체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고 매우 힘들었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 단체가 기독교를 조롱한다는 데 있다”며 “나는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조롱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종교를 믿든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화-금) 05:00AM
- 2부 08: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게)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광)예배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j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배움의 열기, 더위를 이기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2025학년도 세 번째(7~9월) 학기 프로그램 접수를 6월 25일(수) 시작했다.
접수는 6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마감한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접수 전 9:30am 부터 번호표를 배포한다고 미리 알렸으나, 시니어센터 앞에는 캄캄한 오전 3시부터 신청자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피아노, 하모니카, 스마트폰, 음악교실, 인공지능AI, 댄스 과목은 오전에 이미 마감했다.
신영신 이사장은 “새 학기에는 모두 49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 교수님들의 헌신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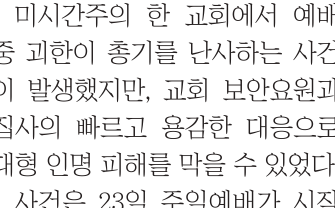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가 2025학년도 세 번째(7~9월) 학기 프로그램 접수를 6월 25일(수) 시작했다.
주소: 965 S. Normandie Ave, #200 LA, CA 90006
문의: (213) 387-7733, ksccla@gmail.com
웹사이트: www.ksccla.com

어노인팅교회 한 여름의 기도축제



침묵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혼육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어노인팅교회(라 크레스타 소재, 신경섭 목사)는 해가 긴 여름철을 맞아 침묵기도회 축제를 여디디야교회(놀워 소재, 양영준 목사)와 함께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아침 5시 30분에 개최한다.
침묵기도회 축제를 준비하는 신경섭牧사는 “여름철을 맞아 침묵기도회에 초점을 두어 영어로는 Centering 또는 Contemplative Prayer라고 하나의 주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기도는 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인데 기존 6시 새벽기도회에 앞서 침묵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된다”고 초청의 말을 전했다.
침묵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개인별로 안내가 제공된다. 처음에는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모이다가 online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어노인팅교회가 매주 화, 목 오전 5:30에 침묵기도회를 연다.
5시 30분 1부는 침묵기도회이며, 6시 2부는 평소처럼 기도하면 된다.
주소: 2902 Montrose Ave., La Crescenta, 문의: T 224. 622. 918

미시간 교회 집사와 보안요원, 총기 난사 막아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예배 중 괴한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회 보안요원과 집사의 빠르고 용감한 대응으로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건은 23일 주일예배가 시작된 직후인 오전 11시경, 미시간주 웨인시 소재 크로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에서 벌어졌다. 디트로이트 뉴스와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총격범은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채 교회로 향했고, 당시 교회 내부에는 약 150명의 교인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예배는 어린이 성경학교와 함께 진행 중이었고, 현장에는 많은 가족과 아이들이 있었다.
총격범은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차량에서 내려 교회 쪽으로 접근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했다. 교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에는 예배가 끝나가던 시점 갑작스러운 총성과 함께 공포에 휩싸인 교인들이 의자 뒤로 숨거나 급히 뒷문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총격범이 교회에 접근하던 도중, 교회로 진입 중이던 집사가 운전하던 포드 F-150 트럭이 그를 들이받았다. 범인이 트럭에 치여 쓰러진 순간을 틈타 보안요원이 신속히 대응해 총격범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바비 켈리 주니어 담임목사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범인의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여 직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트럭을 운전하던 집사와 보안요원의 용기 있고 신속한 대응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회는 언제나 공격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에 10여 년 전부터 자체 보안 인력을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곧바로 미 연방수사국(FBI)과 웨인시 경찰이 출동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홍은혜 기자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5년 대박

SCAN ME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www.btssolar.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고.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TALK BTSSolar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종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310)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성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킹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모든 예배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종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 (화-토)
종보기도 오전 10:00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 (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킴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성경공부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일새벽기도회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예배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종보기도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후 1:00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토요종보기도회 오전 10:30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osgcc@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오전 11:30
저녁 7:30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지(요청시)
주요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아) / 금요일 오후 8:00 (영아)
파워워십 2번주 금요일 오후 8:00(영아) / 4번주 목요일 오후 8:00(한아)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김영한 칼럼

예수가 받은 십자가형,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V)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상임대표

VIII. 마지막 희생양 그리스도: 희생제사를 종식시키기 위한 희생제물

서구에서는 포스트모던 조류(潮流)가 지배하는 오늘날 정통 기독교를 복권시키는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자기 희생(self-oblation), 형벌을 엄한 사랑(tough love)으로 이해한다. 지라르는 천명한다: “예수의 십자가는 폭력의 기초적 메카니즘을 제시한다.” “예수는 희생양(scapegoat)이지만 희생제물(sacrifice)은 아니다.” “어느 복음서들에서도 예수의 죽음은 하나의 희생제사로 정의되지 않는다.” 지라르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은 지속되는 희생제사(sacrificing)를 종식시킴으로 모든 지속되는 희생양 만들기(scape-goating)를 종식시킨다.

지라르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구약 레위기적인 희생제의에 대해서도 예수

는 마지막 희생제물(the final sacrifice) 이기에 신약 히브리서는 더 이상의 희생제사(sacrificing)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은 신화 속에서 맹위를 떨치는 폭력의 전염을 폭로함으로써 신화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다... 예수 수난 이야기에서 예수는 자신의 무고함을 만천하에 보여주면서 (비난해야 한다는) 이 의무를 ‘무효화시키고’ ‘없애버렸다.’” 세계종교들의 공통적인 신들(gods)이 희생제사와 폭력의 신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God)은 희생제사와 폭력의 신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엄한 사랑과 자비의 신이다.

인문학자요 종교문화학자로서 지라르는 형벌 대속적 개념을 인류학적 희생 개념을 빌려 해석한다. 그럼으로써 그의 희생 개념은 성경적 하나님의 독특한 화해와 사랑 개념을 약화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가 레위기적인 희생제사 개념을 강하게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에는 폭력의 개념보다는 죄의 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적 신약적 대속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문신학자 이상으로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의 독특성이 여태까지 종교문화적 인류학적 희생개념인 은폐된 희생제사로서의 폭력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이러한 희생제사

에 대한 비판을 가했으며, 종말을 가져왔다고 해석하는 점에서 기독교 신학에 공헌을 하고 있다. 그리고 테드 피터스(Ted Peters)가 말하듯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의 “최종적인 희생제사”와 지라르가 말하는 예수의 “최종적인 희생양”은 기능적으로 보면 결국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를 “최종적인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속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지라르는 희생제사 개념을 신들의 폭력행위라고 거부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강조했으나, 신학자 슈바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마지막 희생제사라는 십자가의 역설을 인정한다.

판넨베르그는 지라르가 예수의 죽음을 주로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라르의 저서들은” “대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II, Grand Rapids: Eerdmans, 1994, 422.) 예수의 십자가로 창세 이후로 희생제사가 수렴되고, 폭로되고, 전복되고 그리고 내부로부터 치유된다.

지라르는 레오폴드 루카스 시상식에서 “복음서는 신화의 죽음이다”고 역설했다. 지라르는 이사야 53장을 자신의 희생양 이론 속에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이 고난받는 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원형으로 이해하여, 이 희생양인 고난 받는 종인 희생양을 에워싸는 군중들을 본다. “십자가의 승리는 폭력의 희생양 순환에 대항한 사랑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선언하는 자라르의 희생양 메카니즘(scapegoat mechanism) 사상은 “현대신학이 도외시한 기독교 속죄론의 중요성을 종교인류학적으로 다시 환기시킨 점에서 기독교 복음의 유일한 독특성을 드러내었다.”

희생양 메카니즘은 역병, 전쟁과 같이 사회적 차이들을 지워 버리는 문화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작동된다. 그 위기의 책임자로서 소수자들이 지목되고 피부색, 질병, 광기 그리고 신분 등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집단이 희생양으로 몰린다. 예로,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조선인이 약탈 방화를 했다더라”... 등의 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의 군경과 민간인으로 조직된 자경단들이 6천명의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참상이 발생하였고, 일본정부는 조선인 학살에 가담, 주장, 묵인하였다. 지라르의 희생양 메카니즘 이론은 현대사회에서의 집단적 폭력의 광기(狂氣)를 잘 설명해 준다(Ted Peters, Sin: Radical Evil in Soul and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94, 184 f.) <계속>

노예해방 기념일 준틴스 데이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 목사

6월 19일은 흑인 노예해방 기념일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였습니다. 이날은 2021년 6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 미국에서는 12번째의 연방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서명이 있기 하루 전 하원 찬반투표에서는 찬성 415와 반대 14로 통과되었습니다.

준틴스 데이 공휴일은 남북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내전, 남북전쟁의 중요한 관건은 노예제도였습니다. 1862년 링컨은 먼저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고, 1863년 1월 1일

이후 해방령이 발효됩니다. 1865년 4월 전쟁이 끝나자, 북부 중심의 연방군이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주 갤버스턴(Galveston)에 도착하여 “모든 흑인 노예가 해방되었음”을 다시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준 나인틴스”(June Nineteenth)를 줄여 “준틴스”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노예가 없는 자유민의 나라가 되었으며,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권운동의 결과로 현재의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라인 미국이 이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구가하게 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정치문화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로 유명한 정치학자 다니엘 엘라자르(Daniel J. Elazar)는 이 미국적 자유의 기반을 “언약” 혹은 “사회계약” 사상에서 찾습니다. 그는 성경의 언약 사상을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 사상이 사회계약론으로 개신교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정치문화의

변혁이 나타났음을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의 미완성과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언약 사상을 통해 자유를 성취함을 비교합니다.

엘라자르는 “정치 속의 언약 전통”이라는 주제로 4부작을 남겼습니다. 이 대작 중 첫 번째 책, 『성경적 이스라엘의 언약과 정제(Polity)』에서 국가 건설의 세 가지 모델을 구별하여 말합니다.

첫째는 정복(conquer) 모델이고, 두 번째는 유기체(organism) 모델이며, 셋째로는 언약(covenant) 모델입니다. 바로의 이집트나 중세의 봉건제도 그리고 현대의 나찌즘이나 파시즘은 첫 번째의 정복 모델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정치문화는 피라미드적 위계질서라고 합니다. 둘째의 유기체 모델로서 엘라자르는 그리스 도시국가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경우는 엘리트 중심의 귀족정치가 이루어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가장 활력이 넘치는 정치적 모델은 개인의 독자적 가치와 권위의 인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모델입니다. 언약 사상은 중세의 위계질서나 국가 유기체론에 저항하여

일어난 개인의 동의를 통한 계약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언약은 또한 성경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피조물인 인간을 언약의 당사자로 대우하시며, 우리의 자발적 참여를 불러일으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위상의 존중(respect)과 인정(recognition), 그리고 언약 당사자의 결단(decision)과 동의(consent)의 과정은 공동체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독재를 막는 권력분립, 그리고 각 주에 이르기까지 이를 확장시킨 것이 미국 민주주의와 연방제입니다.

언약에서 무시되기 쉬운 부분은 “프론티어”(frontier) 곧 경계와 그 밖 미개척지입니다. 이전에는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원주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에는 흑인들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준틴스 데이는 흑인들도 어느 정도 경계선 안으로 들어왔다는 증표 같습니다. 21세기에는 경계선 안에 있지만 아직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라티노의 해방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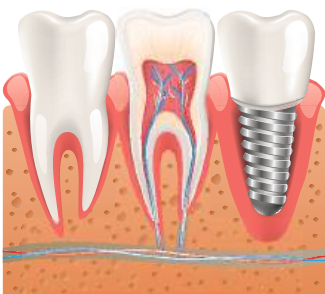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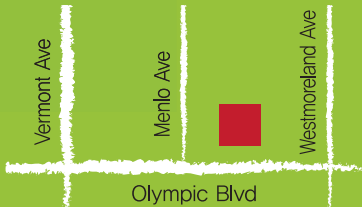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朝鮮日報
창간 105주년
미주조선일보LA
창간 6주년

TOP7 LIVE IN LA

미스터트롯3

추길

손빈아

김용빈

추혁진

천록담

남승민

최재명

2025. 8. 24(일) 2PM, 6:30PM

WILSHIRE EBELL THEATRE 월셔 이벨 극장

TICKET OPEN

chosunticket.com | 🔍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LA

티켓 예매 (213)459-6800 | (213)315-5177



미스터트롯3

Top7과 떠나는 크루즈여행

8월 25일<월> ~ 29일<금> 4박 5일

손빈아

천록담

김용빈

추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미스터트롯 선상 갈라쇼, 멕시코 전통쇼, 탈렌트쇼

“푸짐한 경품잔치”



탈렌트쇼 & 가라오케쇼

멕시코 문화센터
마리아치밴드와 민속공연 관람

선상 스페셜이벤트 (오후)

미스터트롯3 프리미엄 선상 공연

다양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항공권, 마사지체어, 알래스카 크루즈 등)

▶ 요금: 오션뷰 **\$1,799**
발코니 **\$1,999**

▶ 포함: 4박 5일 크루즈 비용, 세금일체(포트세, 정부세), 기항지 투어(2일) + 프라이빗쇼 관람 및 행사, 크루즈 보험
*1인당/ 2인1실 기준 *예약시 완납, 캔슬시 패널티 적용



여행의 명문 -
ELITE TOUR

엘리트 투어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평생 배움에 필요한 성경적 교육 철학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기 위해… ‘평생 배움’을”



존 파이퍼의 평생 배움

존 파이퍼 | 이제름 역
생명의말씀사 | 272쪽
18,000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 탐험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광대한
세계를 주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 가고
누리고 전하도록
감각과 지성과 마음을
주셨다

이 책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정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탐색하고
적용하도록 돕는다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다양한 배움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지한 기쁨을
더할 것이다

존 파이퍼는 초대하는 글에서 이 책의 분명한 취지를 설명했다: “본서의 취지는 우선 베들레헴대학 및 신학교의 교육 이념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다(18쪽)”.

파로 설명이 필요 없는 저자인 존 파이퍼(그래서 책 제목도 원서랑 상관없이 ‘존 파이퍼의…’라고 붙인 것 같다). 그는 베들레헴대학 및 신학교 총장으로서, 평생 그가 모든 설교와 책을 통해 외친 기독교 교회학주의(기독교 기쁨주의) 정신이 어떻게 그가 섬기는 학교 안에서 배움의 과정에 나타나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①관찰 ②이해 ③평가 ④감정 ⑤적용 ⑥표현.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이 해석학 시간에 배우는 기초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고(관찰-해석-적용), 만물을 연구하는 학생이 해부학/생물학 시간에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처럼 들리기도 한다. 파이퍼는 정확히 그것을 의도하여 이 책을 썼다. 책의 부제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말씀을 탐구하며 하나님을 끝없이 즐거워하는 6가지 배움의 기초’를 이 책을 통해 제시하려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지극히 단순한 ‘배움의 기초’가 신선하고 묵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자가 각 과정을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하기 때문이다. 결론 부분에서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관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영적인 감각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든 가치에 대한 참된 척도로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느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감정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용하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2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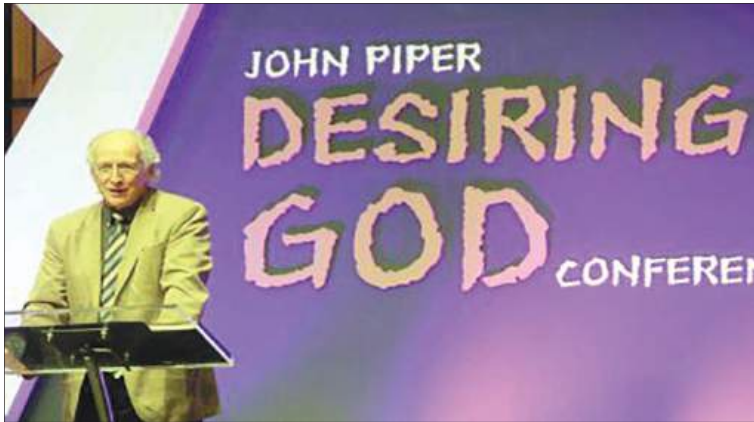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배움에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다. 관찰할 대상이 없어지고, 관찰할

수 있는 지성 자체가 없어진다. 평가 기준을 잃어버리고, 합당한 감정을 품을 수도 없다. 우연이 아니면 배움이 일어날 수도 없고, 배움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그래서 파이퍼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구한다. 각각 기초적인 배움 단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이퍼는 ‘감정’과 ‘적용’, ‘표현’을 설명하면서 그가 평생 강조해 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그분께 가장 큰 영광이 돌아간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되풀이한다. 저자는 항상 기독교인이 진리 안에서 느끼는 감정(특히 기쁨)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진리를 알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이 표출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에 순종하라”고만 명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요구한다. 배움은 세상과 말씀을 탐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끝없이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즐거움의 표현이 감정, 행동, 말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적용(큰 의미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감정, 적용,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딤후 3:17)”이 아닌가.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일을 할 것이다.

파이퍼는 이 책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자주 던진다. 특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배움의 주 목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로 적용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진리를 배움으로 기쁨이 채워졌다면, 그 기쁨으로 이제 시키는 일을 하라고 권하는 것처럼



▲존 파이퍼 목사. ©크투 DB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기쁨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을 견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파이퍼는 순종 또는 적용이 우리 기쁨을 온전하게 한다고 답했다. 순종을 위해 기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한다고 말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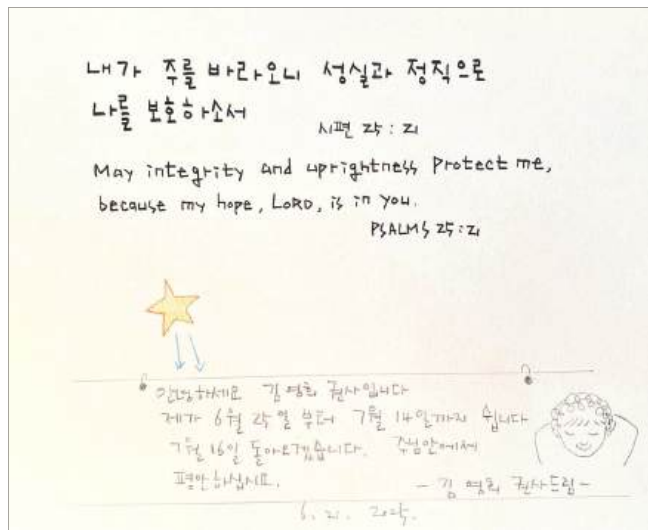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자 배움이 일으킨 감정이라면, 적용과 표현은 그 감정을 더 충만하게 만든다. 이것은 자칫 우리가 망각할 수 있는 평생 배움의 기초이자 유익이다. 우리는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끝없이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관찰과 이해와 평가를 갈구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결국 모든 사람은

평생 배운다. 세상과 말씀을 통하여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런데, 잘 배워야 한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존 파이퍼의 평생배움>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그들의 관찰과 이해, 평가와 감정, 적용과 표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기초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돕는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평생 기뻐하도록 돕는지 점검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분을 되찾아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고 헛되지 않도록, 모든 배움이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가치 있고 유익한 것으로 발견되도록 인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상담심리학 프로그램 디렉터 채용공고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는
상담심리학 석사(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과
전문코칭학 석사(Master of Arts in Professional Coaching) 과정을
담당할 디렉터 교수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Ph.D. 또는 Psy.D.)
기독교 분야 석사학위 (M.Div., 신학석사 등)
한국어 및 스페인어 강의 가능
관련 분야 교수 또는 디렉터 경력 5년 이상
미국 내 취업 자격 보유
관련 전문면허 소지자 우대

■ “근무 조건”
파트타임(주 3일), 필요 시 풀타임 협의 가능
급여: 경력 및 역량에 따라 결정

■ “제출 서류”
국·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한글, 스페인어)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추천서 (목회자 1부, 교수 1부)
신분증 사본

■ “접수 마감” 2025년 7월 11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처” Steve Hong (stevehong@ptsu.edu)

CPU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서성록, 한 점의 그림] 기산 김준근의 『천로역정』 삽도

국내 첫 번역 <천로역정> 속 삽화의 역사와 의미

삽도, ‘천성의 길을 가르치다’
박해받던 이들이 사랑하던 책
조선 남성 평범한 복장 그려내
한국 문화 통찰과 애정의 발로

기독교 고전으로 불리는 존 버니언(John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은 줄거리 못지 않게 삽도 역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너다니엘 폰더(Nathaniel Ponder)에서 출판한 『천로역정』 첫판에 ‘크리스천’이 굴에서 잠자는 삽도를 게재한 것이 좋은 반응을 얻자, 5판부터는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동판으로 된 삽도 13점을 추가했다.

18-19세기에는 수십 점에서 수백 점으로 늘어났고, 삽도의 비중이 커지자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윌리엄 호가드(William Hogarth)와 같은 유명 화가들의 참여로 한층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W. R. 오웬스(W.R. Owens)가 『천로역정』을 ‘어떤 주목할 만한 문화 및 출판 현상’으로 부른 것은 이 책이 지닌 특별한, 곧 선교사들에 의해 성경 다음으로 번역된 최고의 작품이자 국경을 뛰어넘은 애독서란 의미를 포함한다. 『천로역정』이 고전작품이 된

데는 펍박을 받아온 개신교 역사가 숨겨져 있다. 이사벨 호프마이머(Isabel Hofmeyr)는 『천로역정』이 초국가적으로 유통된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그는 17세기 정치적·종교적으로 탄압받았던 사람들 중 『천로역정』을 열성적으로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탄압에 직면해 유럽과 대서양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둘째, 『천로역정』을 복음적 핵심 문헌으로 채택함으로써 19세기 선교운동이 탄력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즉 『천로역정』은 각국에 기반을 둔 선교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지역으로 퍼져갈 수 있었던 셈이다.

셋째, 19세기 중반부터 『천로역정』 저자 존 버니언이 영국 소설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전통’의 작가로 인정받으면서 각 나라로 확산됐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첫 번째 단계, 즉 박해받던 청교도 신자들이 유럽, 북미, 카리브해로 떠나 정착지마다 해당 언어로 『천로역정』을 번역, 보급하면서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선교사가 이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작용했다. 미국 땅에 이주한 청교도들이 감명을 받은 서적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를 매개로 그들의 신앙을 공유하고자 했기 때문이

다.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이 책을 번역할 당시 기산 김준근에게 참고용으로 제공한 것은 1860년 간행된 맥과이어 목사(Rev. Robert Magurie, 1826-1890)의 주석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에는 19세기 영국화가 헨리 셀루스(Henry C. Selous)와 프리올로(M. P. Priolo)가 제작한 삽도가 실려 있었다.

[책 타이틀 『턴로력덤』은 1853년 영국 선교사 번스(W. C. Burns)가 중국어로 번역한 『天路歷程』을 가져온 것이다. 이후 중국어역은 언문역과 관화역으로 나뉘어 간행되었는데, 게일의 『턴로력덤』에 등장하는 주요 명칭은 관화역을, 삽도의 타이틀은 언문역을 각각 저본(底本)으로 삼았다.]

이 삽도는 김준근의 삽도와 유사한 장면이 많아, 주로 맥과이어 주석본에 실린 그림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텍스트와 별개로 제작한 42점의 삽도는 현재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판화는 카탈로그 『턴로력덤』 삽도, 기산 김준근의 기독교미술』(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9)에 해설과 함께 수록돼 있다.

김준근이 저본으로 삼은 헨리 셀루스와 프리올로의 공동작은 어떤 차이점을 지닐까. 이 사실은 작품을 살펴볼 때 드러난다. ‘선의(Goodwill)가 크리스천(Christian)에게 천성의 길을 알려주는 장면’을 살펴보자. ‘크리스천’은 ‘유순’과 ‘고집쟁이’와 동행하였지

만 어려운 일을 겪는 가운데 그들은 순례를 포기했고, ‘크리스천’만이 좁은 문에서 ‘선의’를 만나 안내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맥과이어 저본에는 ‘선의’와 ‘크리스천’ 두 인물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전면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으며, 배경에는 성채와 나무가 아슬아슬 보인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라한 행색의 ‘크리스천’이다. 주인공은 그의 험난한 순례를 짐작케 하듯 해진 바지를 입고 있으며, 등에 진 짐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겨운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에 반해 김준근의 삽도는 평범성이 강조된 편이다. 의상은 저고리와 바지, 짚신 등 조선 남성의 복장으로 되어 있고, 배경도 산수화에서 볼 수 있는 점준과 선준 위주로 제작됐다. 맥과이어 저본이 ‘선의’의 도움으로 믿음의 조상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닦아놓은 순례에 필요한 귀중한 조언을 듣는 데 비해, 김준근의 삽도는 지리에 어두운 나그네가 ‘선의’를 만나 친절하게 행선지를 안내받는 것으로 그려졌다.

셀루스-프리올로처럼 드라마틱한 구성 대신, 얼마든지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이 장면을 묘사하였다. 북식 측면에서 보면 맥과이어 저본에서 ‘선의’가 귀족 차림의 토가 복장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김준근의 그림에서는 갓을 쓴 도포 차림의 양반으로 그려지고 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양감과 원근법과 같은 조형 개념이 부재했던 점을 생각할 때, 김준근은 헨리 셀루스의 그림을 보고 명암법과 원근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했을지 고민했을 것이다. 일부 삽도에서 서구의 원근법을 차용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김준근은 선 위주의 동양화 수법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였다. 김준근은 등장인물을 복식이나 조형적 측면에서 한국 독자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도한 것이다.

『천로역정』을 출간할 때, 왜 그토록 많은 삽도가 필요했을까? 글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이미지를 동원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나탈리 콜레박(Nathalie Collé-Bak)은 삽화가 책의 장신구 역할이 아닌, 이야기를 확장한다는 점을 들었다.

즉 독자들이 소설의 이미지를 봄으로써 본문을 강렬하게 받아들일게 만들고, 극적 장면들에 대한 인상을 기억에 새기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말하자면 삽도가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소설 내용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턴로력덤』은 이미지의 특성을 잘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평소 한글을 ‘세계에서 견줄 만한 것 전혀 없는 우수한 언어’로 여긴 게일 선교사는 이 책을 발간하면서 복음에 봉사하도록 부름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조선 풍속화에 정통한 김준근에게 삽도를 의뢰하여 한국의 문화양식을 반영한 것은 그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천로역정 중 ‘크리스천이 복음 전도사의 계도를 받다’(기산 김준근).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 오도록”

‘2025 북한동족구원과 자유를 위한 집중기도회’ 열려

그날까지선교연합이 19일 저녁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에서 ‘2025 북한동족구원과 자유를 위한 집중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는 환영사, 개회기도, 찬양, 메시지, 집중기도, 탈북민 증언, 축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운성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송기성 목사가 개회기도를 드렸으며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원로)가 ‘눈물로 뿌려야 할 기도의 씨’(시편 126: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감격의 순간이 조명됐다. 특히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이 허락된 사건은, 당시 백성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역사를 시인은 단지 고레스의 정치적 결정으로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친히 포로를 돌려보내신 구속의 사건으로 고백한다. 주변 이방 민족들조차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할 만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편은 귀환의 기쁨을 회상하는 동시에, 귀향 이후 마주한 현실의 고통과 낙담도 함께 고백하고 있다. 돌아온 유다 백성은 극심한 가난과 방해, 신앙의 침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며 눈물로 씨를 뿌린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민족의 현실에 비춰보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감격, 그리고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 북녘 동포의 현실이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큰 일, 북한의

복음화와 남북의 통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기도의 씨앗이 결국 기쁨의 열매로 맺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첫 번째 집중기도에서 함덕기 목사(큰기적교회)가 ‘북한 내 지하 기독교인들을 끝까지 지켜 주시고 처형당하지 않게 하시고, 북한 내에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의 날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박용균 목사(한장협 사무총장)가 ‘굶주림과 인권유린과 세계정보의 압박 가운데 처해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하 나님이며 도와 주소서’, 김정희 목사(제일교회)가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가 부여되어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더 이상 강제 복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북한 지하교회 존재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탈북민 증언을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저는 1988년 북한 외교부에 입부한 뒤, 김일성의 지시로 로마 교황을 북한에 초청하는 외교적 임무를 맡았다. 당시 김정일은 해당 계획을 전면 중단시켰으며, 내부 회의에서는 ‘교황이 북한에 오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보위부의 반대가 있었다. 당시 북한의 한 모태신앙 노파가 보위부의 회유에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처럼 북한 내부에 여전히 신앙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일성 시대에는 점처럼 흩어져 있던 신자들이 김정일 시대에는 선으로, 김정은 시대에는 면으로 조직화되며 지하교회가 확산되

고 있다. 주일마다 가정에 모여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의 모습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지금도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들의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기도가 크면 클수록 북한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북한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임현수 목사(TMTC 대표)가 ‘북한을 몽땅 복음화 하라’(예레미야 24:7)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임 목사는 “올해는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해다. 저는 북한 감옥에서 949일간 억류됐지만 당시 체험한 복음의 능력과 자유의 소중함을 증언하고자 한다. 당시 저는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하루 8시간의 중노동, 허락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히 수도원에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코람데오의 실재를 체험한 시간이었다. 당시 저는 북한 정권이 혐의로 제시한 ‘국가전복 음모죄’, ‘최고존엄 모독죄’, ‘탈북민 지원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북한 보안당국은 저의 수년간의 설교만을 반복 재생하며 ‘신학적 감시’를 지속했다”고 했다. 이어 “놀라운 반전은 그 과정에서 일어났다. 처음에는 적대감을 드러냈던 조사관들이 점차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일부는 식사와 간식, 목욕까지 챙겨주는 등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설교를 함께 듣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저는 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복음을 들은 그들의 마음이 열



‘북한동족구원과 자유를 위한 집중기도회’ 강사들이 기도회가 열린 영락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날까지선교연합

리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마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삼위일체적 통치 구조가 오히려 복음 이해에 장애물이 되기보다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 북한은 신관이 단순해 예수님만 참 하나님임을 깨닫는다면 복음 수용이 쉬울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약 3만 4천 명의 탈북민 중 1만 2천 명이 교회를 출석 중이라는 통계도 있다. 북한 복음화는 결코 먼 일이 아니며,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북한의 문을 당장이라도 여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송정명 목사가 ‘북한동족 치유는 하나님 손에’(예레미야 33:2-3)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송 목사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눈물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라는

본문처럼,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며, 백성이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임을 믿으며 외쳤고, 이러한 예언은 바벨론 포로 70년 후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민족의 현실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실제로 독일 동서 분단의 장벽이 기도로 무너졌듯, 기도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통로다. 1982년부터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시작된 월요기도회는 7년 만에 7만 명이 모이는 기도운동으로 성장했고, 그 물결이 결국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을 이끌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땅과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실 것이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일 때, 하나님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한반도에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여실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英 ‘성 인식 증명서’ 발급인 수, 5년간 3배 이상 증가

영국에서 ‘성 인식 증명서’(Gender Recognition Certificate, 이하 GRC)를 발급받은 사람의 수가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 “2025년 3월까지 영국에서 발급된 GRC는 총 1,169건으로, 2019년 364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GRC가 처음 발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트랜스젠더들이 법적 성별을 정

정하는 데 필요한 이 증명서는 소위 성별 지정 증명서로, 자신이 주장하는 성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다. 2014년 발급된 GRC의 약 63%는 1980년 이전에 태어난 이들에게 제공됐으나, 2024년에는 그 비율이 17%로 급격히 줄었다.

반면 1980년 이후 태어난 이들에게 발급된 GRC의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37% 증가한 것이다. 2000년 이후 태어난 이들에게 발급된 GRC의 비중도 2019년 4%에서 2025년

24%로 6배 증가했다.

현재 발급된 GRC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1990년대 태어난 이들로, 2025년 3월까지 전체 45%였다. CT는 “이러한 급증은 수수료 대폭 인하 등 인증 절차의 변화와 젊은이들의 신청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0년간 GRC를 발급받으려는 이들의 남녀 비율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5년에는 4분의 3 이상이 남성이었으나, 최근 3년간은 남성 52%, 여성 48%였다.

한편 이번 통계 발표는 지난 4월 “여성”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여성을 지칭한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나온 것으로, 대법원은 “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성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이제 공공시설과 서비스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제공돼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은 탈의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

성 스포츠 참여 또한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평등및인권위원회(EHRC) 위원장인 키슈워 폴크너(Kishwer Falkner) 남작부인은 판결 이후 BBC 라디오 4와의 인터뷰에서 “이 판결이 GRC를 무가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송의 다음 단계는 GRC 및/또는 다른 영역의 효능을 시험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문선영의 머니토크

은퇴할 때 꼭 챙겨야 할 필수품, 어뉴이티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Q : CD에 그동안 묶어 뒀던 돈이 이제 끝나갑니다. 67세가 되어 은퇴하는데 이 CD로 다시 묶어야 할 지, 이자 불을 때마다 세금내는 것도 성가시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A : 1년 이후에 찾아 써야 할 돈들은 그냥 CD를 활용하는 게 좋지요. 하지만 오래 묶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어뉴이티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어뉴이티는 은행 CD 보다 더 좋은 이자로 매년 이자가 붙어도 어뉴이티는 내가 찾아 쓰지 않는 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당장 쓰지 않는 돈을 복리로 3년에서 10년 등의 시간을 묶어 두고 큰 이자로 자라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Q : 남편의 401k와 저의 IRA가 이제 은퇴하면서 써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찾으면 둘이 합쳐 62만불 정도 인데 은행에 넣으니 평생 쓸 은퇴인컴으

로 충분하지도 않고, 또 다 찾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A : 은행에 401k나 IRA를 찾아서 은행에 옮겨놓으면 일년에 5만불씩만 쓰신다 하더라도 은행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겨우 은퇴 후 11년 정도가 지나면 원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은퇴수명은 생각보다 더 길니다. 따라서 401k와 IRA의 원금을 찾아 쓰시는게 아니라, 어뉴이티에 옮기시면서 원금에 이자를 받아 찾아 쓰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100세까지 꼬박꼬박 보통내 원금의 2.7배에서 3배까지도 나오는 평생인컴 어뉴이티를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401k나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시는 데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위에 말씀 드린 대로, 찾아 쓸 때 마다 찾아 쓰신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Q : 제가 나이가 드니 부동산 관리도 어렵고 해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지금 현금화 시켜놓고 아픈통 톱톱 시설이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들은 부동산 처분한 돈을 본인에 맡기면 주식 투자를 해서 잘 관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내키지는 않네요. 이런 돈도 어뉴이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A : 아드님이 잘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수익도 낼 수 있지만, 결국 손실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전체 은퇴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인덱스드 어뉴이티에 펀드를 넣으신다면, 첫째 원금은 물론 이자받은 전체금액이 100퍼센트 보장됩니다. 평생 인컴으로 찾아 쓰겠다 하실 때 톱톱케어 건강 상황에 놓이시게 되면 평생 보장된 한달 씩

나오는 인컴이 약속한 것에서 2배를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톱톱케어 상황에서도 믿음직한 보장 정책이 어뉴이티가 해결해 드립니다.

Q : 저희 남편에게 어뉴이티를 얘기했더니 내 돈 내고 찾아 쓰는데 어뉴이티는 싫다고 난리입니다.

A : 어뉴이티이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은행이건 내 돈이 들어가고 내 돈 찾는 것은 마찬가지로인데, 어뉴이티는 이자를 받아서 이자만 꺼내 쓰면서 원금은 언제든지 남기는 것도, 또는 평생 꼬박 꼬박 찾아 쓴다고 해도 원금을 넘어서 원금의 2.5배에서 3배까지도 찾아 쓰는 돈을 개런티 보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부동산, 주식 어느 곳에서도 이 개런티 인컴을 약속하는 곳은 없으니 어뉴이티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재정상담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실력/ 신뢰/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 1위 재정전문가 **문선영**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은퇴연금/ 리빙배너넷/401K 롤오버/ 학자금/ 임대주택/상속



문선영의 머니토크
어려운이 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미국에 살면서 내 돈 오고고, 물리고, 물리는게 뭐냐고 물어봐 주고싶은 거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롭고 유익하게 풀어드립니다. #머니토크 #명파워 돈 이야기 #상황에서 예78는 재정 #문선영 실제 케이스 적용까지 알려드립니다.

라디오서울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유일의 재정방송 라디오문선영의 머니토크(라디오서울 AM1650)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Finance & Marketing
WISI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문선영의
MONEY
TALK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